

라면 그 배가 해변까지 너무 가까이 와버렸다는 뜻이고, 그럼 호박섬을 루이항에 당도하면서 옆에 끼고 지나는 거냥의 모서리로 착각하고서 육지와 그 조그만 섬 사이를 지나가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도 했네. 만약 그렇다면, 어쨌든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그 선박이 정말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고 했지. 또 다른 주민 한 사람이 입을 열더니 우리에게 말하기를, 자기는 호박섬과 해변을 가르는 해협을 여러 번 건너보았다고 했어. 자기는 그곳의 깊이를 가늠해본 적도 있는데, 땅이 굳어 있는 정도도 그렇고 닻을 내리기 아주 좋았으며, 배는 가장 훌륭한 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했고, 그러면서 “거기에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. 저는 거기서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온하게 잠을 잘 수도 있을 걸요”라는 말까지 덧붙였다네. 세 번째로 나선 주민은 말하길, 그 선박으로는 거룻배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저 해협에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네. 그는 배가 호박섬 저 너머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장담했고, 그러니 혹 아침에 바람이 일면, 원래 예정대로 외해로 출항하거나, 항구로 입항할 것이라고 했어. 다른 주민들은 또 다른 의견들을 냈지. 그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는 동안, 폴과 나는 크레올 사람이면 늘 그렇듯 일없이 시간을 죽이며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네. 우리는 꼭두새벽까지 그곳에 머물렀네. 하지만 하늘에 빛이 너무 부족해서 바다 위쪽으로는 어떤 사물도 알아볼 수 없었